



**교통사고 후 처음 골프장에 나타난 우즈** 지난 2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복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골프장에서 나타난 모습이 포착됐다. 우즈의 팬들이 만든 'TW스팟(TWSPOT)'이라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는 우즈가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골프닷컴도 27일(한국시간) 이 사진을 소개하며 "우즈가 지난 주말 플로리다 주 웨스트 팜비치의 PGA 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허리케인 주니어 골프 대회에 출전한 아들 찰리를 보기 위해 나타났다"며 "연인 에리카 허먼이 카트를 운전하고 우즈는 옆자리에 동승했다"고 전했다. 우즈는 오른쪽 다리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카트에 타고 있고, 목발은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김도현 기자, 사진출처 | TWSPOT



## 두 대회 연속 준우승한 장하나 올해 첫 메이저 킴으로 웃을까

내일 개막하는 KLPGA 챔피언십 우승 도전장

2021시즌 개막 후 두 대회에서 모두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2타 차 단독 2위였던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도 그렇지만 지난주 끝난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가 특히 아쉬웠다. 4라운드 18번 홀에서 파란 해도 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는데 통탄의 보기를 범했고, 결국 2차 연장 접전 끝에 또 한번 정상 문턱에서 좌절을 맞았다.

장하나가 두 대회 연속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고 시즌 첫 메이저대회 킴 자리를 노린다. 29일 전야 영암군 사우스링스영암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년 첫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0억 원)에 출전한다. 현재 상금 1위(1억6500만 원), 대상 포인트 1위(74점), 평균 타수 1위(70.25타)에 올라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그는 201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좋은 추억도 간직하고 있다.

통산 13승으로 현역 최다승을 기록 중인 장 하나는 그동안 49억1891만 원을 벌어들여 KLPGA 투어 첫 통산 상금 5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 2위 1억1000만 원, 3위 8000만 원이다. 공동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사상 첫 누적상금 50억 원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개막전 챔피언 이소미(22)와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장하나에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던 박민지(23)는 각각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지난해 5월 국내 개막전으로 열렸던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박현경(21)은 타이틀 방어를 노린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던 최혜진(22)은 2019년 이 대회 우승 기쁨을 되새기며 2년 만에 타이틀 탈환에 나선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세금 떼면 50만7000달러? 사실상 그대로

시즌 중 구단 변경시 세금 문제 복잡  
KBL 이사회서 세후→세전지급 변경  
앞으로 외국인선수가 직접 세금 부담

KBL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 총액을 기존 70만 달러(약 7억7672만 원)에서 90만 달러(약 9억9864만 원)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외국인선수 1명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50만 달러(5억5480만 원)에서 65만 달러(7억2124만 원)로 증액됐다.

겉보기에는 외국인선수 급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후 지급 방식이 되면서 선수들의 실제 수령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1인 연봉 상한 최대치

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제도에서는 연봉(50만 달러)에서 발생하는 22%의 원천징수(11만 달러)를 구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0만 달러를 선수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최고금액(65만 달러) 선수가 실제 가져가는 금액은 50만7000 달러다. 여기에 국내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

KBL이 외국인선수 연봉 지급 방식을 세후에서 세전 형태로 바꾼 것은 세금 관련 구단 간 걸려온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 소속팀과 재계약 을 하거나 KBL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선수는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았다. 시즌 별로 소속팀이 바뀌는 선수들의 세금 문제로 구단들이 설왕설래했다. 외국인선

수의 연중 국내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어갈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어 원천징수(월봉의 22%) 이외에 5월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별도 지불해야한다.

2019~2020시즌 전주 KCC에서 뛰다가 이번 시즌 창원 LG로 이적한 리온 윌리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KCC, 8월부터 12월까지 LG 소속이었다. KCC와 LG에 각각 머문 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지만, 윌리엄스의 국내 체류기간 자체는 180일이 넘는다. 세금제도가 농구 종목 특성상 발생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지는 않는다. 윌리엄스는 외국인 거주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현행 세후 지급 방식에서는 이를 KCC가 내야 할지, LG가 내

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된다. 과거 종합 소득세 지불 문제로 몇몇 구단이 걸려온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이번 시즌까진 모든 세금을 구단이 대납한다.

KBL의 규정 변경으로 이제는 외국인 선수들이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소속 구단에 입금을 하거나 세무사를 고용해 외국인선수들이 직접 세금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구단 간 종합 소득세 지불을 놓고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한다. 한 구단관계자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외국인선수들의 수령액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세대교체 성공한 현대모비스, 내일이 더 기대

양동근 은퇴 후 선수단 대거 개편  
서명진·이우석 등 젊은 가드 성장  
유재학 감독 "선수들이 잘한 시즌"

울산 현대모비스의 2020~2021 시즌 여정이 끝났다.

현대모비스는 26일 안양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3차전에서 안양 KGC에 80-86으로 패했다. 1~3차전 모두 패해 현대모비스의 도전이 막을 내렸다.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58)은 "선수들이 잘해준 시즌"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여름부터 대대적으로 선수단을 개편했다.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양동근(40)은 은퇴했다. 이현민(38·174cm), 장재석(30·204cm), 기승호(36·194cm), 김민구(30·190cm) 등 자유계약선수(FA)를 대거 영입해 전력을 새롭게 꾸렸다. 또한 이번 시즌 초반에는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최진수(32·203cm)를 데려오기도 했다.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인 현대모비스지만, 선수단 개편이 이뤄진 만큼 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즌 초반에는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하위권에 처하기도 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승수가 쌓였다. 현대모비스는 정규리그에서 32승22패를 기록, 2위로 4강 PO에 직행했다.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문턱에서 KGC에 발목을 잡혔으나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다.

유 감독은 "각자 다른 팀에서 뛰다 온 선수들이 모여 치른 첫 시즌이라는 점을 생



유재학 감독

각하면 잘 한 시즌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반에 하위권에 있었는데 그건 내 실수 때문이었다. 선수 조합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베스트5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다. 중반 들어 베스트5를 확정하고, 역할을 나누면서 팀이 자리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을 통해 3년차 서명진(23·188cm), 신인 이우석(23·196cm) 등 젊은 가드들이 경험을 쌓기도 했다. 유 감독은 "(서명진)이와 (이)우석이 모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냈다. 큰 경험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이다. 다가올 비 시즌 동안 준비 잘해서 차기 시즌에는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며 재도약을 다짐했다.

## 평균 시청률 1%...홀대 받던 V리그, 최고 스포츠 콘텐츠로 성장

### 스토리 발리볼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2020~2021시즌 V리그 결산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출범 17번째 시즌의 V리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양한 지표를 곁들여 알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 남자부 134경기, 여자부 96경기의 평균 시청률이 1.01%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6라운드 도중 시즌이 중단됐던 2019~2020시즌 192경기의 평균 시청률(0.92%)보다 0.09%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자배구의 인기 상승세가 도드라졌다. 1.05%에서 0.24%가 늘어난 1.29%였다. V리그 역대 남녀부를 합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흥국생명FC와 GS칼텍스가 맞붙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4.72%로

역대 최고의 순간 시청률을 찍기도 했다. 이 같은 인기 상승으로 V리그는 지금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다. 생존이 막막했던 가운데 V리그 출범을 앞두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게 현재의 놀라운 변화가 그야말로 삼전벽해다.

V리그가 출범한 2005년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막 걸음마를 떼려고 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다. 당시 한 언론은 불투명한 출범 상황을 빗대 '보릿고개에 태어난 아이'라고 표현했다. 김혁규 초대 KOVO 총재가 40여개의 상장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V리그 참가를 호소했지만 반응은 한결같았다. "배구의 인기가 없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보인다"고 했다. 이 가운데 KT는 V리그 참가를 거절하면서 총재에게 달랑 기쁨품 하나를 줬다고 참석했던 관계자는 기억했다. 유일한 희망

은 KGC인삼공사(당시 KT&G)였다. 다양한 경로를 거쳐 접촉했고 남자배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막판에 틀어졌다. 이미 창단 감독까지 내정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약속을 저버린 KT&G는 미안했던지 V리그에 처음 2년간 타이틀스폰서를 맡아줬다. 빈 집에 소가 들어오듯 그 돈은 KOVO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됐다. 출범 당시 구단들은 가입비를 내도록 했는데 이 돈을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고 리그에 참가한 팀도 있었다. 외상으로 리그가입을 받아들여 줄 정도로 KOVO는 힘이 없었고 V리그의 미래는 어두웠다.

중계방송도 쉽지 않았다. 방송사 출신의 박세호 초대 사무총장이 방송사를 찾아다니며 V리그의 중계를 사정하다시피 했다. 당시 방송사들은 "인기도 없는 것을 왜 중

계하느냐"고 했다. KOVO는 경기당 1000만원씩 중계료를 내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방송사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한 V리그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최고의 스포츠 콘텐츠가 됐다. 방송사가 먼저 수십억 원의 중계권을 내겠다고 할 정도로 전세 역전이다. 그만큼 시즌 평균 시청률 1%가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한 동안 남자배구의 오프닝 게임 정도로 취급받던 여자배구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제7구단 페퍼저축은행이 탄생했을 정도로 남자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V리그를 위해 일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노력의 결과지만 반대로 말해서 언제든지 다시 힘들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V리그 구성원들이 삼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단어는 겸손과 끝없는 노력, 그리고 경기의 높은 가치다.